

# 광주 상무지구 ‘月·木 특수’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 거리 가까워 많이 이용 ‘월요일’ 달래고 상경하는 금요일 피해 회식·술약속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가 빗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모임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월·목요일 특수’를 누리고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100일이 지나면서 업무가 안정된 직원들이 나주 시내를 벗어나 광주까지 ‘월정 회식’을 오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상경해야 하는 금요일엔 되도록 회식을 하지 않는 게 원칙. 따라서 혁신도시 이전 기관 직원들의 모임은 주로 목요일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매주 집을 떠나 첫 출근하는 월요일엔 ‘월요일’ 달래기를 위한 동료 직원들 간 술자리도 만들어지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면 상무지구는 주말 못지 않게 손님 발길이 부신다. 유독 상무지구가 이들의 모임 장소로 손꼽히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몰려 있어 회식 특성상 1차, 2차를 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다, 혁신도시와 거리가 가까운 장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정된 나주시내의 ‘맛집’을 수차례 탐방하다 실증을 느낀 이들이 색다른 음식을 찾아 광주까지 방문하고 있다.

더욱이 혁신도시 내에는 아직까지 식당과 술집 등 요식업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고, 선풍 갈만한 곳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가급적 ‘광주행’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불황으로 ‘된서리’를 맞았던 상무지구 유흥업소도 최근 ‘혁신도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경기 침체로 많은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거나 통폐합된 가운데 일부 대형 유흥업소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유흥업소 종사자는 “매주 목요일에는 자리가 없어 손님들이 대기를 할 정도”라며 “이는 최근 혁신도시 관계자들이 많이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이전기관 직원은 “모임장

소로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직원들끼리 ‘얼굴 부딪힐’(?) 가능성이 적은 광주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업무가 끝난 뒤 상무지구 등 광주 방향으로 나가는 일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철도 공사 주변의 한정식집 수 곳은 기존 손님에 혁신도시 기관 직원들까지 몰려들면서 최근 주말에도 빈 자리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한편 빗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상무지구를 오가는 손님이 크게 늘면서 대리운전 가격도 내렸다. 이전 초기 3만 5000원에 형성됐던 이 구간 대리운전 요금은 최근 2만5000원대까지 낮아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 ‘건국 1세대’ 송인상 전 재무부 장관 별세

### 경제개발 3개년 계획 추진 효성그룹 고문 지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고 이병철 삼성그룹 전 회장, 고 조흥제 효성그룹 전 회장 등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남덕우 총리, 유창순 총리, 홍진기 법무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와도 우정을 나누었다. 송 고문은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0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2012년 발간한 평전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에서 송 고문은 자신의 삶을 “가난한 조국에 다 바치고 싶었다”는 말로 요약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동진(사업가)씨와 딸 원자·길자·광자·진주씨가 있으며,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상공부장관을 지낸 이봉서 단암산업 회장, 고 신명수 전 신동방 회장이 사위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02-2227-7550)이며, 영결식은 25일 오전 6시 30분 열린다. 장지는 대전현충원. /양세열기자 hot@연합뉴스

재무부 장관과 초대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낸 송인상 효성그룹 고문이 22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강원도 회양 출신으로 선린상학교와 경성고등상업학교(서울대 상대 전신)를 졸업한 송 고문은 1957년 부흥부(전 경제기획원) 장관과 1959년 재무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 지내며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추진했다. 1974년 EC대사(벨기에·룩셈부르크 대사 겸임) 시절에는 유럽 수출을 3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경험을 높이 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송 고문을 1976년 초대 수출입은행장에 임명했다. 송 고문은 민간부문에서 동양나이론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한국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여년간 한국능률협회를 이끌며 올바른 기업인상 전파에 힘썼다. /양세열기자 hot@연합뉴스

## 공유문화도시 프로젝트 광주시, 사업 기관 모집

광주시가 공간, 물품, 지식, 정보 등을 함께 나눠 쓰는 공유문화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관을 공모한다. 광주시는 22일 “가칭 공유(共有·share)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 등을 할 법인이거나 사회적 기업 등을 선정,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 3일까지 접수를 받고 이후 추진 기관을 선정할 뒤 6월 말까지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 추진 기관은 공유포털사이트를 통해 공유의 개념과 새소식, 공유 참여방법, 민간 및 공공분야 공유 자원 현황 등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검색할 수 있는 공유지도 서비스를 구축하게 된다. 또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유 활동을 하는 단체와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공유 관련 강좌, 활동가 양성, 현장 중심의 정기적 공유 활동 등도 하게 된다. 참가자격은 공유단체나 공유기업 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 단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공유 관련 사업 실적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 전남 농수산물 서울서 쉽게 맛본다



22일 오후 서울 목3동시장에서 열린 ‘서울시-전라남도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식’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전남 농수산물 전시판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전남도 전통시장 상생 협약...전남 농산물 우선 구매

품질이 우수한 전남 농수산물의 서울 진입이 수월해진다. 서울시와 서울상인연합회는 매달 넷째 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통시장 가는 날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에서 전남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전남과 전남상인연합회는 우수하고 저렴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와 전남도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목3동 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서울-전남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 진병호 서울상인연합회장,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재경 전남향우회원, 평소 목3동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전남도는 이날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을 서울 전통시장에 안정적으

로 공급하고, 공동마케팅을 통해 상생 발전해갈 것을 서로 다짐했다. 또 우수 농수산물 생산지를 방문하고 우수 전통시장을 상호 방문하는 등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전남은 전국 최우수 친환경 쌀을 비롯 김, 매생이 등 전국 최대의 청정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며 “서울 상인들과 시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질 좋은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 도로·철도 등 민자사업 대기업 참여 확대

### 10조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재정 조기 집행 등

정부가 도로, 철도 등 공공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이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대기업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와 기업이 민간투자사업의 이익과 손실을 ‘반반’으로 분담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의 도입도 추진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건의 사항을 포함해 민간투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건의 사항은 민간투자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만드는 SPCL을 계열사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일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SPCL은 공정거래법상 ‘30%’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기재부와 공정거래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고 연내에 7조원의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디스플레이선 진입 우려 등 한국경제의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시·유호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

으로 경기회복의 불씨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호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확장적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골자로 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은 지 불과 3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한 인식이 절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최근 내수경기 부진을 우려하며 여러 차례 유호수요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집행관리 대상 사업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액을 2조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 3000억원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액은 18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조기집행률 목표치가 58.0%에서 58.6%로 올라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까지 조기집행 계획 대비 105.4%를 집행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초기 아간 빛반점,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